

“친환경에 전사역량 결집”... 김준 ‘뉴 그린 포트폴리오’ 강조

〈SK이노베이션 부회장〉

SK이노베이션 새해 첫 전략회의
전기 중심 사회로의 전환 포커스
제로카본·리사이클링 전략 집중
ESG 실행체계 고도화·성과 주문

SK이노베이션이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CES 2023 현장에서 새해 첫 전략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SK이노베이션 임직원들은 친환경 사업 실행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전사 역량을 결집해 이를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현장에서 열린 전략회의에서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 윤용철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부사장 등 주요경영진은 CES2023현장에서 SK그룹이 친환경 활동으로 제시한 ‘넷제로’와 ‘카본 투 그린’을 향한 의미 있는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 앞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전략을 논의했다.

SK이노베이션은 CES2023에서 SK전기자 배터리, SK아이테크놀로지 플



SK이노베이션 김준 부회장(왼쪽)이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현장에서 열린 SK이노베이션 전략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SK수펙스추구협의회

렉서블 커버 윈도우 제품이 SK그룹 최초로 최고혁신상을 받은 바 있다.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은 SK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가시적인 ‘뉴 그린 포트폴리오’ 전환의 성과를 창출하고 SK이노베이션의 기업가치를 시장에서 높게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넷제로를 하겠다는 얘기는 장

기적으로 탄소를 감축하겠다는 것인데, SK이노가 하는 에너지화학 사업을 제로카본 베이스로 그 역할을 지속해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을 중심으로 분리막(LiBS) 및 차세대 소재 영역을 확장하는 그린 앵커링 전략, 기존 탄소 발생 사업을 그린 사업으로 바꾸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reen Tra

nsformation) 전략에 연계된 제품과 기술을 선보였다.

김 부회장은 앞서 제품과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기 위해서는 SK 그룹 차원에서 연계하는 사업 확장을 통해 뉴 그린 포트폴리오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 부회장은 “SK이노베이션은 전기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청정 에너지 생산, 리사이클 밸류체인 구축을 통한 폐배터리 재활용(BMR, Battery Metal Recycle) 사업 확장 등을 통해 ‘뉴 그린 포트폴리오’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과정의 일환으로 SK이노베이션은 우선 제로카본과 리사이클링에 집중한다. 김 부회장은 “SK이노베이션은 뉴 그린 포트폴리오를 위해 2가지 미래 전략을 내세운다. 제로카본과 리사이클링이다. 이 두가지는 앞으로 미래에 전기, 화학 분야에서 메가트렌드가 될 것”이라며 “이에 친환경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을 맺고 있다. 아울러 SK어스온, SK이오센트릭 등 친환경 관련 계열사들

의 지원과 투자를 늘려나갈 예정. 목표에 빠르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의 빠른 성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전문가와 협업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 오픈 이노베이션 포스트(Open Innovation Post)를 열거나, 환경 관련 대학, 연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외부 전문가 협업하고 나섰다.

김 부회장은 ESG 경영 내재화 또한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ESG 경영전략을 잘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성 있는 실행과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ESG 실행체계 고도화, 투명한 소통을 통해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인정과 신뢰를 받고 기업가치 상승을 이끌어내자”고 의지를 다졌다.

마지막으로 김 부회장은 내년 경기 악화 전망에 대해 “SK그룹은 경기악화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최빛나 기자 /허정윤 기자
vtna@metroseoul.co.kr

“플랫폼·콘텐츠 등 非하드웨어 사업 강화”

조주완 LG전자 사장 기자간담회
‘고객’ 신념으로 사업 체질개선 약속
‘UP가전’ 등 신가전 행보 자신감도

조주완 LG전자 사장이 위기 속에서도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조 사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2023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래 계획과 전략을 공개했다.

조 사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공급망 불안으로 불확실성이 ‘상수’가 됐다면서도, 기회는 늘 있었고 ‘고객’으로부터 나온다는 신념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다짐했다. 비용 감축이 아니라 사업 체질을 개선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하며, 기존 사업 한계 돌파와 신사업 선택



조주완 LG전자 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과 집중 방침을 강조하기도 했다.

비 하드웨어 사업 강화를 대표적인 전략으로 꼽았다. 하드웨어 중심에서 플랫폼과 콘텐츠, 솔루션 등으로 확대하며 하드웨어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로 포트폴리오를 고도화 하겠다는 것.

디지털 헬스와 ‘엘지 채널’이 대표적. SM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만든 합작법인 ‘피트니스 캔디’는 사업 준비에 시간이 걸렸지만 순조롭게 추진중이고, 엘지 채널은 파라마운트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드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소프트웨어 인력 확보에는 다소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부에서 소프트웨어 인재를 육성하는 방안도 임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수백명이 지원한 상태라고 밝혔다. 계약학과와 연구실과 협력하는 등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 사장은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

을 특히 드러냈다.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투자가 본격적으로 흑자로 돌아오며 지난해 말 80조원에 달하는 수주 잔고를 기록하는 등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은 상태다. 앞으로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합하는 SW 기반 차세대 I VI 솔루션을 준비 중, 글로벌에 공급하는 전기차 구동 부품을 양산하며 올해부터 본격 성장 단계에 진입하며 2026년 1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전기차 충전 사업으로도 확장했다. 국내 기업을 인수하면서 2분기 국내에 이어 하반기 북미로 수출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기차 생산과 충전, 거기서도 SW 영역인 관제와 하드웨어인 충전기 개발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게 됐다. 미래가 확실한 사업인 만큼 지속 투자를 예고하기도 했다.

애플과 협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어느 회사와도 협력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며 사업 역량을 더욱 강조하기도 했다.

신가전 행진도 자신감을 보였다. 이미 UP가전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한 상황, 미니멀리즘 가전 콘셉트를 선보인 데 이어 LG Labs를 통해 다양한 미래 아이디어를 공개한 바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을 새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그 밖에 미래 사업도 준비 중이다. 특히 LG 노바는 북미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와 메타버스 등 미래 유망 스타트업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 중. 암웨이와 공동 개발한 원격진료 솔루션을 선보이는 등 성과도 거뒀다.

HE사업 부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봤다. 수요 감소와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줄어들긴 했지만, 다시 안정화되면서 올해 상반기 이후에는 회복을 점쳤다. 프리미엄 올레드 TV 라인업으로 수익성도 확대 중. TV가 ‘광고판’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미래 성장에도 기대감을 표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최빛나 기자 /김재용 기자

유영상 SKT 사장, AI ‘글로벌 초협력’ 광폭 행보

팬텀AI·팔란티어 등 AI기업 만나
AI기술기반 협력방안·모델 등 논의
“파트너십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을 포함한 주요 경영진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3’에 총출동해 AI기업들과 기술기반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유영상 SKT 사장 등은 이번 6일(현지시간) CES 2023에서 팬텀AI, 팔란티어, 인월드, 모빌린트 등 미국 소재 AI 기업들을 만나 최신 AI 기술 혁신 트렌드를 파악하고, SKT가 보유한 AI 기술 기반의 협력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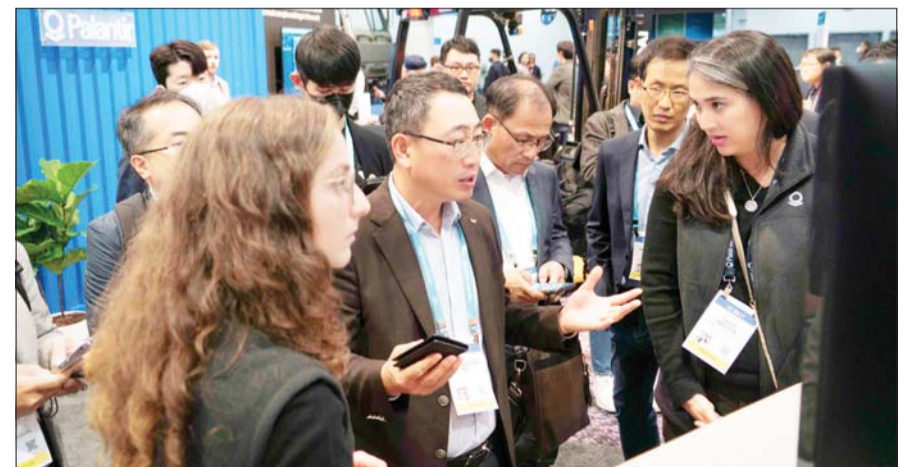
했다. 또 SKT는 CES 행사장 내에 SK스퀘어, SK하이닉스 등 ICT 그룹사들과 별도의 미팅룸을 마련해 각사들의 AI기반 기술을 글로벌 기업들에게 선보였다.

유 사장과 주요 경영진은 미국 자율주행 솔루션 전문회사인 팬텀AI(Phantom AI)를 만나 SKT가 개발한 AI 반도체 ‘사피온’의 기술과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팬텀AI가 보유한 AI기반 자율주행 솔루션과 사피온의 협력 모델에 대해 논의했다.

또 유 사장은 GPT-3 기반 대화형 AI 캐릭터 개발 기업 인월드(inworld)를 만나 이프랜드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방안

에 대해 논의했다. 유 사장은 세계적인 빅데이터 분석기업 팔란티어(Palantir)의 전시관을 찾아 해당 기업이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 및 관리 기술을 활용한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SKT의 C-레벨(직책 별 최고 책임자) 임원들은 AI반도체 기업이 모빌린트를 만나 딥러닝 경량화, 컴파일러 등 모빌린트가 보유한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술을 사피온 반도체에 적용하는 방향을 솔트룩스(Saltlux), 3D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다쏘(Dassault), 슬립테크(Sleep-tech) 기업 에이슬립 등 AI 기술 기업들을 방문하였으며, 위성 기업 막사 테크놀로지(Maxar Technology)와는 이프랜드, 도심항공교통(U



SK텔레콤 유영상 사장(가운데)이 미국 빅데이터 분석기업 팔란티어(Palantir) 전시관을 둘러보는 모습.

AM), 비전 AI 등 SKT의 기술 및 서비스를 소개하고 다양한 협업 방안과 공동 사업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이번 CES에서는 전세계 글로벌 AI 기업들이 참

여해 다양한 AI 기술과 적용 사례들을 제시했다”며, “SKT는 이들과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추진해 글로벌 톱 수준의 AI 컴퍼니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스베이거스(미국)=최빛나 기자